

건강 칼럼

체력은 진짜 국력이다

2019년 이후 3년여에 걸쳐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점점 움츠러들고 있다. 지금의 추세로 볼 때 하루 이틀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지속적으로 바이러스의 (근본적인 숙성이기도 한) 변종이 주기, 비주기적으로 이어지거나 전혀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물러올지도 모른다.

그런 생활여건에서 살고 있다. 도로와 항만, 하늘길이 다양해지고 빨라지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 순환되고 있다. 이에 세균, 바이러스도 함께 급속도로 이동, 확산되고 있다.

이에 각 국가별로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예방, 치료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지만 그 역량보다 세균, 바이러스의 위력은 그 장벽을 가볍게 뛰어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각 개인의 예방수칙의 생활화는 물론 체력의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예전보다 살아가기 뼈든한 형태로 체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가 그리 쉽지 않다.

시간이나 공간이 여의치 않다. 더구나 수반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신체활동을 위한 체육교육도 예전에 비해 충실하지 못한 편이다.

휴양인간,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체육에서 체력장 제도가 1995년도에 폐지되고 초, 중, 고교에서 신체활동, 체육시간이 줄어들고 끝이어서 전개되는 군인의 길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즉 군인, 국방의 기초가 되는 체력이 낮은 수준에서 시작되나 군대에서의 교육, 훈련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전투체력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군복무기간도 단축되어 '보이스카웃'이나 병영체험에 불과한, 겨우 18개월에 머무르는 실정으로 전술습득, 전투능력의 제고는 고사하고 체력을 다지거

나 향상시키기도 백골난관(白骨難丸)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사회에 복귀하게 되므로 그 이후의 체력은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남게 된다. 극도의 경쟁이 가중되는 생활전선에서 체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그리 쉬운가?

그 결과로 말미암아 20세기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과체중, 비만으로 진행되고, 그에 따른 연쇄반응으로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혈관계 질환은 물론 대표적인 대사질환인 당뇨병의 발병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질환자는 우상향(右上向)의 급속한 증가일로에 있다. 요새 흔히 말하는 '기저질환자'가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어 급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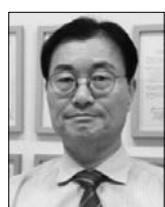
게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어쩌면 머지않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전 국민의 '기저질환자'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지 않아도 국가수준에서 보건 의료행정의 경제성 지주인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비용의 지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더욱 증가할 것이다.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사후에 뒤처닥거리하는 비용보다 사전에 예방하여 사전, 사고를 줄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3살 어린이들에게도 상식적인 일일 것이다.

따라서 국가수준에서 보건 의료정책이 사후야방문 격의 대책보다 예방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영아, 수확보)학교체육을 건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그 과정과 제도를 예전의 체력장제도로 돌리기에 시대적인 여건이 다른 만큼 21세기에 일맞은 신체활동 제도를 개발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은 물론 '평생체육', '체육활동의 생활화'의 일환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윤 희

파워스포츠과학연구소 대표

사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무자격 업체에게 20억대의 설계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넘어가고 다시 하도급되면서 33억 원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모두 감사원의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현재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은 설계 용역뿐 아니라 송변전 설비 설치 입찰이 5차례나 유찰되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게 설계 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2018년 현대글로벌과 설계 용역 발주 등을 약속한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다.

문제는 현대글로벌이 공동 개발 협약 체결 당시 아무런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설계 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었던 것이다.

한수원 담당자들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새만금솔라파워는 이듬해 현대글로벌과 228억 원 규모의 설계 및 인허가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한수원이 81% 현대글로벌이 1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감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 10월 현대글로벌과의 용역 계약을 합의 해지했다.

현대글로벌은 한수원으로부터 설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뒤 다른 업체에 설계권을 하도급해 33억 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설계 금액이 2억1천만 원이 넘는 경우 공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한수원 차장과 부장과 실장을 고발했다.

계약은 무효가 됐고 33억은 환수됐다. 군산 송송동에 건판을 내건 현대글로벌은 직원이 몇 명에 불과했으며 전문 설계회사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228억 원의 수상태양광 설계 용역을 따내 처음부터 의문이 컸었다.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전라북도소상공인협회 홍규철 회장

전라북도소상공인협회 제2대 회장에 홍규철 회장이 선임됐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제2대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 홍규철 회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권리 주장을 위해 더욱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보상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에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히 커져가고 있다.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했다.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된다. 영업시간 제한도 부활했다. 식당·카페와 실내 체육 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없다.

정부는 곧바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방역 지원금 명목으로 1000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들은 이런 정부

대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다시 방역 수준을 조이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방역 교편에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

모처럼 장사 분위기가 되살아나면서 연말연시 대목을 노렸던 이들이라 절망이 더욱 크다. 이들은 ▲방역패스 철폐 ▲영업제한 철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때문에 매출이 코로나 19 이전의 30%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 금지 명령은 대면 위주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계절휴업 상태이거나 폐점하는 점포가 많아져 소상공인들은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재산권이 침해된 소상공인 모두에게 적용하는 포괄적 손실보상제 도입을 검토할 때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개와 함께 경계 구역 순찰하는 우크라이나 병사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에서 한 우크라이나군 병사가 개와 함께 러시아 반군과의 대치 구역을 순찰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전략 인종 회담을 뚜렷한 합의 없이 종료했다.

중국, 코로나19로 시안·톈진 이어 안양도 봉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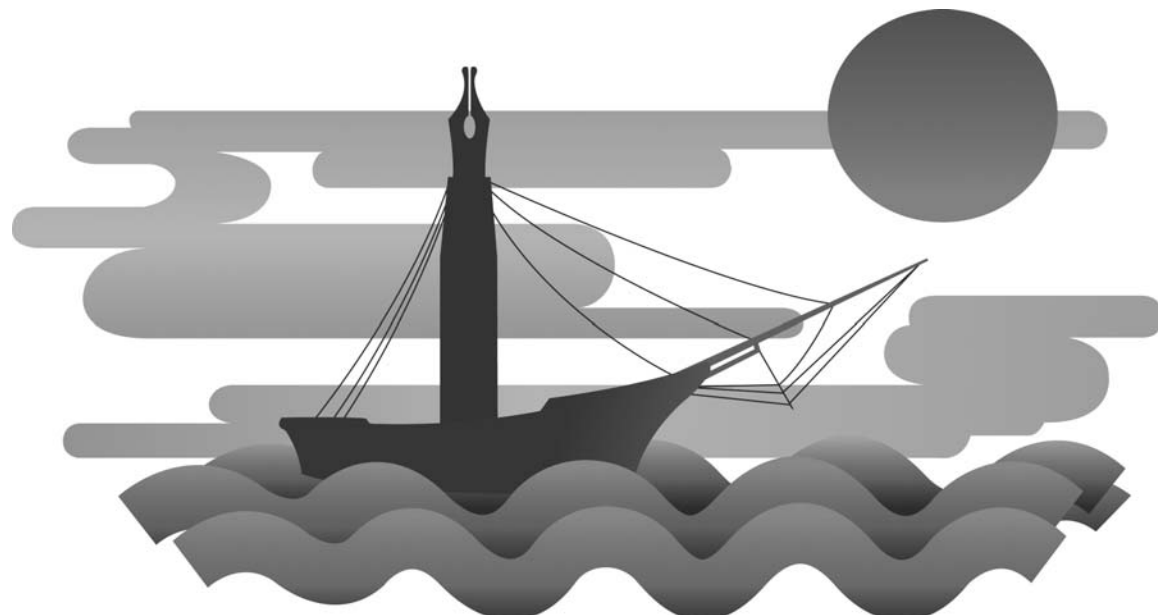
10일(현지시간) 중국 허난성 안양시의 화현에서 한 의료인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베이징과 인접한 안양에서 코로나19 시계가 급증하자 중국 정부는 인구 500만의 안양시를 봉쇄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